

따뜻한 만남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최초로 실시한 위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에 이어 폐암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1일과 12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폐암과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폐암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평가에서는 20개 부분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암 치료가 최적의 전문 인력과 진단, 치료체계까지 최우수 병원임을 확인했고, 동시에 폐암과 위암 수술을 잘 하는 병원임을 인정받았다.

위암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위암수술(내시경 절제술과 위절제술 포함)을 시행한 전국 20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진단과 수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기에 항암치료를 했는지 등을 평가한 16개 부분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고, 결과가 최초로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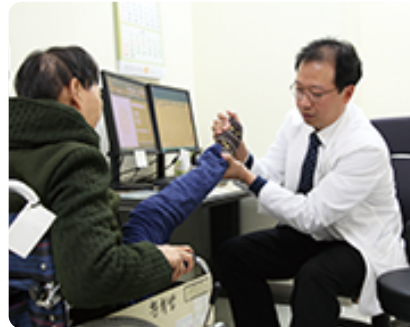


02 ‘천개의 따뜻한 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첫 번째 프로젝트로 13일 이전 승가원자비복지타운에 입소 중인 장애인생 5명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으로 초청해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무료로 시행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2015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과 수행에 전념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한 스님을 돕기 위한 큰 뜻을 세우고, 사회공헌에 필요한 규정 개정과 후원금 홍보활동을 해 왔다.

첫 번째 자비나눔 대상자는 2011년부터 의료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생들로 결정했다. 의료봉사를 하면서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했으나,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번 프로젝트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지역민과 이천만 불자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을 저소득층과 장애복지시설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돌려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0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6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패 수상은 산재환자 관리를 위한 적정진료와 환자관리, 행정처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타 병원으로 전파한 점과 산재환자 관리와 환경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4년 근로복지공단에서 90여 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산재 의료기관 평가에서 종합병원 2위를 수상했고, 고양시에서 유일한 산재의료기관 인증병원이다. 앞으로 산재환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04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공유의 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7일 5층 대강당에서 제11회 QI경진대회를 개최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환자안전과 고객만족 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시행된 QI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우수 부서들을 포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QI운영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QI우수사례 9개 팀이 구연 발표를 했고, 11개 팀이 포스터 발표를 했다. 이날 병원장 이하 주요 보직자들이 2차 발표심사를 하여 ‘FMEA를 통한 낙상예방 활동’을 발표한 병동간호팀, 한방간호팀 등으로 구성된 ‘떨어지지 마, 제발’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팀 20개의 포스터는 1월 4일부터 8일까지 직원식당 앞에 전시하여 전 교직원과 공유했다.

오민구 병원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QI의 내용이 더욱 알차고 그 결실도 더욱 크고 탄탄해지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병원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진대회를 위해 애쓴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2016년 병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혁신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05 ‘사랑의 난방유’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8일 식사동 주민센터를 찾아 식사 3동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30만 원 상당의 난방유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난방유 상품권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연탄, 난방유 등 따뜻한 이웃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재선 일산행정처장은 “올겨울 추운 한파에도 난방비 걱정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병원은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꾸준한 노력봉사를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조정호 식사동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게 쉽지 않은 요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된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06 환자 사랑의 시작은 손 씻기로부터 ‘2015년 손 씻기 모니터링 실시’

감염관리실에서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손 씻기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손 씻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최근 메르스의 유행으로 병원 내 감염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손 씻기이다. 손 씻기만 잘 하여도 감염병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씻기는 환자 접촉 전·후, 무균 시술 전, 혈액 및 체액 접촉 후, 주변 환경 접촉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알코올손소독제는 20~30초간, 물과 손소독제를 이용할 때는 40~60초간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인의 손은 병원감염 전파의 중요한 매개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와 시작 끝에서 올바른 손 씻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직원 모두 ‘손 씻기의 생활화’를 통해 감염 걱정 없는 더욱 안전한 병원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07 반갑다 연우야 ‘사랑재’봉사단, 암환자 가발지원

사회사업실과 반갑다 연우야 ‘사랑재’봉사단은 12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가발 지원을 했다.

이날은 5명의 암 환자에게 가발을 지원했으며, 환자 개인에게 어울리도록 가발을 손질해 주고 가발 관리법을 안내하는 등 환우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반갑다 연우야 ‘사랑재’봉사단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본원 암 환자들에게 가발 후원을 약속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오민구 병원장은 사랑재 봉사단의 꾸준한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알 리 미

불교 및 순수회화 방정모 작품 전시회 기간 | 1월 18일(월) ~ 31일(일) 장소 | 1층 로비